

예수 승천 대축일
(홍보의 날)

기도서 305 면

제1독서: 사 도 1, 1-11
제2독서: 에 페 1, 17-23
복 음: 마 르 16, 15-20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주님,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김 등 준 신부

우리들의 불성실과 죄악이 한 뭉치 거들어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마태 16,4)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오늘 살아있음은 아직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용서하시고 나아가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표이다. 이는 무상의 축복이며 은총이 아닐 수 없다. 크리스찬이 이승에서 사는 날까지 희망하며 ‘보다 큰 사랑을 위해서’ 투쟁하고 신음하며 사는 유일한 까닭이다.

사랑의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하느님은 예수를 통해서 가장 인간적이며 극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셨다. 예수는 인간의 기준이며 모범일 뿐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표상이 되었다. 인생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며 예수를 당신 마음에 드는 자임을 선언하셨다. 예수는 스승이시며 구세주이시다. 하느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인간과 역사(役事)만이 영원하다. 이를 가르켜 구원이라고 말한다.

부활과 승천은 그분 사랑의 삶의 당연한 결과이다. 신앙의 출발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 이 말씀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때가 아니다.”(사도 1, 11) 나에게 주어진 빛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내야 한다. 내일은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없는 날이다.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겁쟁해 하기 보다는 내게 허락되어진 촛불을 밝혀야 한다. 세상이 색었다고 열골에 경련을 일으키기 보다는 내가 소금의 빛을 다해야 한다. 녹지 않는 고고한 결정체의 소금은 자기 기만이다. 하느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지켜 보신다는 ‘하느님의 현존의식’은 신앙생활의 관건이다.

크리스찬은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빛이 있고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으며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점은 허구한 날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겠다’는 식의 머리와 입술로만 사는 데 있다. 지금 시작하자!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역사(役事)를!

오늘 사도들처럼 “주님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사도 1, 6)하며 곧바로 심지(心志)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들을 닮고 지금 시작하자.

(대전신학 대학 교수)



역사의

한 장(章)을 꾸민다

—주보 500호 특집 마련에 붙여—

성장과 부패의 숨가쁜 「유신」 열풍속에 몸살을 하던 교구 10년의 파노라마— 우리들 「복음의 광장」과 「역사의 증언」들이 한 실록(實錄)되어 책으로 엮어진다.

그간 교회 안팎에 일고 부딪혔던 슬한 사건과 삶의 현장에서 카랑카랑 울리던 현역 사제들의 표호소리(강론)와 멧히고 얽혀 외쳐낸 한 신도의 「소리」, 그리고 날카롭게 꼬집던 「요십이 만평」 등, 그야말로 형극의 70년대 자국들이 깊은 감회를 물씬 자아내게 한다. 그 위에 밝고 선한 교형들의 희비어린 노래며 시, 산문, 수필 또 울조리던 사연들이 절절이 깨우침과 교훈을 가득 안겨주고……

우린 지금 그 자취, 지난날 살아뒀던 교동(鼓動)과 교구민의 합창, 그 증언의 낙수(落穗)들을 거둬 모으고자 한다. 이를하여 「숲정이 500호 특집」. 그안에 우리들의 사랑과 정의, 세상평화 위한 땀방울과 보람들을, 그리고 시련을 딛으며 오늘토록 면면히 단합과 일치를 다져온 그 귀한 모습들을 담고자 하는 것이다. 오는 6월 20일이면 바로 감격의 그날이 된다.

10년 풍랑을 헤쳐온 일엽편주(一葉片舟), 교구의 조그만 사기(史記)랄까? 그대 가능한 최고급 양장으로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숲정 증언록」 한 권을 출간코자 부산한 작업을 펴고 있다. 이미 뒤편에서 20여 봉사위원들이 일차 선정과 편집의 숨은 노고를 쏟고 있는데 모두 고맙기 그지없다. 값진 수확 되여지리라 믿는다.

다만, 차체에 교우들의 고마운 관심과 협조 한 가지만 빌고 싶다. 막대한 출판비 조달을 위해 특별한 찬조와 성원을 베풀 독지가 아니 계실지? 모두에게 고마울 귀한 뜻을 기다려본다. (熙)

숲 정 이 산책



이젠 우리의 심정을 이해 하겠지요?



보도의 권리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주 그리스도께 창설되었으므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며 동시에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데에 매스 미디어도 이용하고 또 그것들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의 의무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교육과 구원 사업에 필요하고 유익한 범위 내에서 이 모든 종류의 매스 미디어를 사용하고 소유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긴한 것은 매스컴에 관계하는 모든 이가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시대에 날카롭게 논쟁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더욱 그러하다.

첫째 문제는 흔히 말하는 정보 즉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것이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인류 사회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들의 밀접한 유대 때문에 매우 유익한 것이고 또 가끔 필요한 것이 된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사건을 신속히 공개 보도함으로써 각 사람이 사건의 진상을 완전하게 또한 계속적으로 알게 되므로 각 사람이 효과적으로 공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모든 이가 전 국가 사회의 보다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에 있어서 사람은 개인으로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나 각자의 조건에 따라 알아야 할 일에 관한 보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보도의 대상은 언제나 진실해야 하며 정의와 사랑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외에 보도 방법에 있어서도 윤리적이어야 하며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즉 뉴스의 취재나 전달에 있어서 윤리 법칙과 각자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모든 지식이나 유익한 것은 아니고 오직 "진실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코린 전 8, 1).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에서)

매스컴의 사도직을 위한 기도

주여, 당신은 당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으로 세우셨습니다.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레코드와 같은 매스컴 수단이, 언제나 당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교회가 매스컴의 수단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모양의 사도직을 통해 성소를 일으키시며, 선량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활동과 회사로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아멘.

매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세계 홍보의 날”을 다시 맞은 오늘, 남에게 탓을 돌리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홍보 매체를 대하는 나의 자세는 과연 어떠한지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성 싶다.

물 쏟아지듯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정보,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흥미분위의 오락 프로그램과 읽을 거리들,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주입되는 사상에 의식하지도 못한 채 물들어 가는 우리가 아닌지? 이러한 매체들의 강력한 힘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흥미위주의 연속극을 매일 저녁 보면서, 마구 벗어쳐야만 팔리는 영화 앞에서, 다 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쇼 프로그램 앞에서, 친편일몰적인 정보 앞에서 그것들의 진실여부를 가릴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정신에 어긋나는 것인지조차도 판가름 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그런 매체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홍보의 갖가지 매체들에 지배당하여 온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사회홍보수단의 바른 역할을 유도해야겠다.

진리이신 스승을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우리 자신이 되려면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온갖 흥미위주의 오락물 속에서도 진리와 어긋나는 가치와 도덕관을 가려낼 줄 알아야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홍보 매체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반드시 주는 사람만의 탓이 아님을 새롭게 의식하며 수용자인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더 없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빛이어야겠다.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

교회서적으로 거룩한 본당 공동체, 믿음과 희망의 본당 공동체, 예배하는 본당 공동체, 사랑과 친교의 본당 공동체, 선교하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자.

(아래의 책들은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들입니다.)

- * 바로 지금입니다
- *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 * 저분은 주님이시다
- * 기도
- * 사랑의 기도
- * 마음을 열고
- * 조건없는 사랑
- * 성서 연구를 위한 대화주제
- * 기초 공동체 건설

아가페 양로원
모 집 안 내

- 종교 불문 ◦ 60~70세의 할머니 ◦ 단체에서 어려움 줄지 않는 건강 ◦ 선착순(늦으면 곤란)

※ 꼭 현장을 보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이리역 시내버스→황동삼거리→과수원 하차 2층집)
아가페 정양원 원장 서신부

☐ 생화· 각종 화분
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주세요

진선미 꽃집
전주극장골목 전화②2628
범띠또(역배)·이 마리아

제일모직 VIP 식매점
(구) 현대라사
각 메이커 순모·훈방 다량 구비
주. 양영욱·장현우(바오로) 전화 ②4520 ②3620

전북신문 친일여관 백제화랑

제일모직 식매점 명보 제과



□ 성소자 광주 신학대학 견학

지난 5월 16일 교구에서는 제19회 성소주일 행사로 사제성소에 뜻이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 80여명이 함께 광주 신학대학을 견학했다.

성소자들은 신학생들의 열렬한 환영과 신부님의 강의로 성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며 신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우리모두 성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성소육성과 성소계발, 후원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면 내일의 교회는 더큰 힘이 되지 않을까?

□ 장례 예절 교육 성황리에 개최

지난 5월 9일 평협 주관으로 가톨릭 센터에서 장례 예절 교육을 가진바 있다.

20년의 역사를 가진 애령화 조직후 처음 있었던 역사적 교육이었다.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예절, 대세에서 하관까지의 실습 과정, 애령회 활동의 활성화 모색 등 생생한 교육을 통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 요한 회장님과 허 테레사님의 열의와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각 본당에서도 지원을 청한다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살아있는 우리는 죽은 형제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희생으로 깊은 천고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임실 성당에 L.M 꾸리아 신설

임실본당은 지난 5월초에 전신자 연수회를 갖고 7개 쁘레시디움으로 「정의의 거울」꾸리아를 창립하였다.

초대 단장에 정 일웅(안드레아)씨가 선임되어 매일 내제주에 회합을 갖게 된다.

축복해주고 싶은 것은 관촌 공소 레지오 단원들이다. 현재 불철주야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루의 피곤함을 잊고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단원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

M.E 소개의 밤

M.E(Marriage Encounter)는 피정이나 세미나와는 다릅니다. 더욱이 가톨릭적 산아제한 방법을 가르치는 모임은 아닙니다. M.E란? 부부간의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참된 부부애와 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전주교구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가톨릭센터에서 M.E 주말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부부를 위해 아래와 같이 M.E 소개의 밤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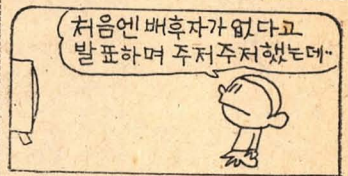
일 시 : 5월 27일(목) 오후 8시

장 소 : 가톨릭 센터

신청마감 : 5월 25일

※강 사 : 오재호 부부(서울에서 특별히 오십니다.)

요심이 (459) 김병오



(축)

은 경

안복진(요셉) 신부

1982. 5. 26 (수)

사제서품 25주년을 맞이하시는 신부님께 더큰 주님의 은총 증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둔을동 천주교회 신자일동

대한 도장 공사

지하수 개발공사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대형기계 보링, 지하수개발 각종 페인트칠 전문, 페인트 판매, 기타 일질
전화 ⑤ 4874
김 의 화(요셉)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 배드로(관통)
남 베로리카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료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료(대지탕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의료효과와 선구자 神秘食品 土龍

필(베네딕도) 수도원 제조
통용환, 정제, 맥기스, 초밀란
사무실 : 전주, 구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6-5587 김 미카엘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너와 나의 하느님」 저자 윌쉬 신부님 특별 강연: 일시-6월 4일 오후 1시~6시 중앙성당에서
2. 제 6 차 레이오 연수회 실시: 일시-7월 19일~22일,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농촌지역 레이오 전단원 등 특목금-5,000원(전액 분당지원) ※ 희망자 명단은 6월 5일까지 제출하십시오
3. 군·육지구 활동 아치에스 행사: 일시-5월 30일 오후 2시, 장소-월명동 분당, 전단원 참석 바람
4. 「축」 영명 지 정환(디디에) 신부님: 5월 23일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기억하며 병환중에 계신 신부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중앙)

전화 ①71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박광문

- ※ 성경읽기 사도행전 19장~28장, 요한복음 16장~21장
1. 중앙성당 25주년 기념 성전건립: 성전건립을 위하여 특별히 헌금하실 분은 분당신부님께 전화 혹은 면담하세요
 2. 어린이 영세: 5월 28일(금) 오전 10시30분 어머니미사후, 미취학 어린이를 영세시킬 분은 당일 10시까지 사무실에 오셔서 접수하세요
 3. 중앙신협조합 제 9 차 정기총회: 오후 1시 중앙성당 신용조합원은 전원 참석 바랍니다
 4. 성모의 밤: 일시-31일(월) 오후 8시 준비물-초·현화·목주·미사도구
※ 아침미사 없습니다
 5. 장수녀님 종신허원: 매-6월 10일 11시 꽃-노송동성당, 두길은 종신허원을 축하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29, 227원

(서화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성모의 밤 행사: 28일(금) 저녁 8시 개인 단체는 유인물을 참조해서 준비하시기 바람
 2. 새로 오시는 두분 수녀님: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3. 예비자 교리: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수녀님)
 4. 어머니 성서모임 발족: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삼우아파트(13반)
 5.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함문권 ②강태호
- 지난주 봉헌금: 224, 320원 교무금: 80, 5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④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예수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안내
아침미사-6시, 공식미사-야외, 밤 7시30분
 2. 성신강림 주일(30일): 미사시간은 평주일과 같음
 3. 성모의 밤: 30일 밤 8시
 4. 요안히 윌레회: 30일 공식미사 후
 5. 주일학교 아동교리반: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를 아동교리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차주 전례담당: 해설-홍성조
독서-박병열·백시현, 기도-이귀례
 7. 미사참례 안내: 권영순, 서숙자, 정금순, 김상욱
- 지난주 봉헌금: 381, 170원

(노송동)

전화 ④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축! 영세식: 29일(토) 오후 4시30분 대부분을 모시고 4시까지 나오세요
 2. 성모의 밤 행사: 31일(월) 저녁 8시 성모님께 성사와 기도를 봉헌하십시오
각 단체별 꽃다발 봉헌예식 있음
 3. 미사시간 변경: 화요일 저녁미사가 없습니다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4. 꾸리아 옥외행사 연기: 꾸리아의 사정에 의해 연기합니다
 5.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고린도 1, 2서 전체
 6.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7. 대학생 모임: 매주(금) 저녁 7시30분 빠진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8. 쟈 모임: 매주(토) 오후 5시
 9. 예비자 교리: 남자반-매주(목) 저녁미사 후
학생반-매주(토) 오후 4시
- 지난주 봉헌금: 297, 215원

(전동)

전화 사투 ⑤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투 ⑥3222번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울뜨레야: 오후 8시 사제관
 2.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3. 설가절회: 24일(월) 오후 2시
 4. 쟈 모임: 매주(토) 오후 5시
 5. 성모의 밤: 28일(금) 저녁미사 후 초, 꽃 봉헌, 성가책, 목주 지참
 6. 주일학교 성모의 밤: 31일 오후 6시
 7. 에어로빅 운동 교습생 모집: 장소-전동 소강당
24일 접수마감, 50명 선착순, 사무실 접수
 8. 자모회 소록도 방문: 26일(수) 6시 출발
신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9. 신축기금: 김창성·주낙천·장현두(각 5만원), 박영례·문정례·양성자(각 3만원), 신귀례(2만원)
 10.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규, 독서-①이현재 ②김동연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안득수 ②유기동
저녁미사: 해설-김운주,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신자들의 기도-박열행(세시리아)
- 지난주 봉헌금: 526, 52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성모의 밤 행사: 29일(토) 오후 8시 각 가정별 꽃다발, 초 봉헌 바람
 2. 부의에 협조 감사합니다: 183, 850원
예령회에서 활동 생미사 봉헌하겠습니다
 3. 다음주 윌레회: 진복회, 부녀회
 4. 혼련중인 군종신부님 위문: 광주 상무대 방문, 신부님의 건강할 모습이었습니다, 혼련중인 신부님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오늘은 8시30분, 10시, 3시 미사 없습니다
오늘미사-오전 5시30분, 11시-야외미사, 저녁 8시 미사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467, 04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활희상

1. 예비자 교리: 일·화·목 오전 10시, 오후 8시 30분
 2. 각 단원과 분당 신자들은 예비자 안내에 적극 협조 바람
 3. 분당 운영상 미납된 교무금을 속히 완납 바람
 4. 분당 신자들은 분당신부님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람
 5. 26일 오전 9시30분 효자삼거리로 성모회원 전원 모임, 회비 1,000원 지참하시고 야외놀이 금산사로 출발
- 지난주 봉헌금: 171, 010원 교무금: 75, 000원

(복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성모의 밤: 오늘 저녁미사 후(전신자 참석 바람)
 3. 주일학교 어린이 성모의 성: 24일(월) 저녁 7시30분
 4. 미사시간 엄수: 미사 10분전에 와서 준비하여 미사 질서를 확립하십시오
 5. 차주 전례: 해설-안경태, 독서-①김성원 ②송영자
- 지난주 봉헌금: 443, 200원